

쉬어가는 자리

故 事 成 語

이 기 춘
한국능공학회 고문

法三章(법삼장)

3가지 조목의 法이라는 말이며, 간단한 法, 즉 번잡하지 않은 간략한 法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漢나라 劉邦(유방)은 秦(진)나라를 쳐 항복을 받고 玉璽(옥새)를 거둔 뒤에 마침내 수도 咸陽(함양)에 入城하였다. 秦의 호화찬란한 궁궐에 들어서자 天下의 劉邦도 마음이 헤이해졌다. 번쩍번쩍하는 보물, 재화 그리고 美女들에게 눈이 끌렸다. 그래서 劉邦은 궁궐을 뜨지 않으려 하자 보다 못한 변패가 간곡히 진인 하였다

「이 財寶와 美女들이 바로 秦나라를 멸망시킨 요물들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張良도 곁에서 거들어서 한마디 하였다.

「이곳에 入城할 수 있었던 것은 秦나라가 財寶에 눈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머물러 쾌락을 즐긴다면 秦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劉邦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 陣地(진지)로 돌아와 野營을 하였다. 그리고 縣(현)의 원로와 유지들을 불러 놓고 선포한 法이 이 法三章이었다.

사람을 죽인자는 죽을 것이며,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친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즉 殺(살)·傷(상)·盜(도) 3가지 만을 죄로 삼겠다는 法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秦의 가혹한 法에 시달려 왔소. 秦의 法을 비방하는 사람은 가족이 모두 죽음을 당하고 화제에 올린 사람들도 시체가 되었소. 이제 안심하시오. 나는 여러분과 약속 하겠소 法은 三章뿐이요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와 물건을 훔친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하겠소 그 밖의 秦의 惡法은 모두 폐기하겠소」

百姓들이 환성을 울리며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法이 있어야 산다는 世上에 法 때문에 오히려 살기 어려운 世上이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라.

乾坤一擲(건곤일척)

직역을 하면 「하늘과 땅을 한번에 던진다」라는 말인데 하늘과 땅을 걸고 단판 승부를 겨룬다는 뜻으로 쓰인다. 곧 천하를 잃느냐 얻느냐, 죽느냐 사느냐와 같이 사생결단을 건 최후의 한판 승부를 일컫는다.

이 말은 唐나라의 대문장가 韓愈(한유)가 鴻溝(홍구)를 건너다가 그 옛날 楚나라의 項羽와 漢나라의 劉邦이 鴻溝江을 경계로하여 天下를 兩分했던 故事를 생각하며 지은 「鴻溝를 지나면서」라는 七言絶句詩에 나오는 文句이다.

楚의 項羽와 漢의 劉邦은 협력하여 秦(진) 나라를 쓰러뜨렸는데 그 후 두사람은 天下의 盟主(맹주)가 되기 위해 격렬한 전쟁을 전개했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두사람은 지친 나머지 전쟁을 중지하기로 하고 鴻溝(홍구)에서 만나 天下를 둘로 나누어 領土를 삼기로 하였으며 그 경계선은 鴻溝로 하여 東쪽은 項羽가 차지하고 西쪽은 劉邦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강화가 성립되자 項羽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東쪽으로 돌아갔다 劉邦도 西쪽으로 돌아가려하자 張良과 陳平(진평)이 말하기를 「이제야 말로 楚를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劉邦은 말머리를 되돌려 項羽를 추격해서 물리치고 天下를 거머쥐게 되었다.
 龍疲虎困割川原 億萬蒼生性命存 誰勸君王回馬首 眞成一擲賭乾坤
 (용은 지치고 호랑이는 피곤하여 領土를 나누니 억만 창생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네. 그런데 누가 군왕을 권하여 말머리를 돌리게해서 하늘과 땅을 걸고 단판 승부를 내게 했던가)
 여기서 龍과 虎는 물론 項羽와 劉邦을 가르킨 말이요, 누가는 張良과 陳平을 가르킨 말이며 운명과 흥망을 건 乾坤一擲의 승부로 天下를 거머쥐게 되었다는 말이다.

유모어 코너

자는게 다 됩니까

어떤 사나이가 미모의 과부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소에 출두했다. 고소의 이유는 과부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사나이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사나이를 세워 놓고 「被告는 이 婦人和 잠자리를 같이하고 잠을 잔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사나이는 고개를 설레 설레 저으며 대답하는 것이었다.
 「웬 千萬예요, 잠을 자는게 다 됩니까, 자기는커녕 언제나 밤새도록 눈도 붙이지 못했는걸요」

한국의 地名由來

서울市 落星堡(낙성대)

서울 冠岳區 奉天洞의 서울大學校 後門進入路 옆에는 高麗時代에 40萬 淸安軍을 섬멸시킨 龜州大捷의 英雄 姜邯贊(강감찬) 장군의 탄생지인 落星堡가 있다.
 이곳을 落星堡라고 한 것은 姜邯贊 장군이 태어난 奉天洞 山 218번지에서 그 母親이 장군을 낳은 날 밤에 큰 별이 이곳에 떨어졌다고 하며 별이 떨어진 자리에 3層 石塔이 있었는데 이 石塔을 이곳으로 옮기고 落星堡라 부르게 되었다.
 이 塔은 高麗때 세워진 舍利塔 양식으로서 서울市 地方有形文化財 제4號로 지정되어 있으며 「姜邯贊 落星堡」라고 새겨져 있는데, 원래 이 塔이 있던 곳은 榻골 또는 落星洞이라 한 것도 모두 이 塔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落星堡 안에 있는 安國祠는 慶州 浮石寺 無量壽殿(무량수전)을 본떠서 만든 建物로서 姜將軍이 淸安軍을 물리쳐 安國功臣이란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安國祠라 부르게 된 것이며 경내에는 길이 12m의 구름다리 와 약 5,000m²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祠堂에는 姜將軍의 영정, 姜 장군 탄생 상징도, 淸安軍 퇴치를 위한 전략회의도 등 8종류의 벽화가 있으며 慶州의 太宗武烈王陵碑를 본떠서 화강암으로 만든 姜將軍 사적비 등을 세워 성역화하고 있다.